

부채비율 개선, 마냥 반길수 없는 이유? “투자감소 방증”

2019 위기를 경영하라

⑥ 기업부채의 역할

투자 감소,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보유현금 늘어 잉여금으로 쌓여

국내 기업들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부채비율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 부채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를 줄인다는 의미다. 투자 감소는 결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따르면 기업신용은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3분기 말 82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1~3분기 회사채는 우량 물(AA등급 이상)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가장 큰 순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 줄어드는 부채비율... 결국은 투자 감소
문제는 부채비율이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18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3333개 기업의 지난해

〈지난해 3분기 기업경영분석 주요경영지표〉

지표	업종별	전산업(ALL)		대기업		중소기업	
		2017.3/4	2018.3/4	2017.3/4	2018.3/4	2017.3/4	2018.3/4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2.10	2.00	1.98	1.78	2.74	2.95
	총자산세전순이익률	6.55	6.26	6.53	7.01	6.67	2.95
수익성 지표(%)	매출액세전순이익률	6.44	7.15	6.98	7.97	4.17	3.45
	매출액영업이익률	7.37	7.62	7.99	8.39	4.75	4.13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0.93	0.94	0.82	0.83	1.40	1.41
	차입금평균이자율	3.62	4.02	3.40	3.95	4.46	4.23
활동성 지표(회)	이자보상비율	789.81	813.96	971.38	1,009.56	339.37	292.05
	총자산회전율	0.90	0.87	0.87	0.88	1.02	0.85
안정성 지표(%)	매출액증가율	4.81	3.52	4.61	4.92	5.66	-2.40
	자기자본비율	54.38	54.65	55.85	56.14	47.87	48.10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83.88	82.98	79.04	78.11	108.91	107.92
	차입금의존도	20.47	20.28	18.62	18.40	28.68	28.52
	차입금대매출액비율	25.55	23.29	24.78	21.05	28.92	33.46

자료=한국은행

3분기 부채비율은 83.0%로 전분기(83.9%)보다 소폭 내렸다. 2015년 조사 당시 100%대였던 부채비율은 2016년 들어 90%대, 올해 83~85% 수준까지 낮아졌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67.2%로 2분기(67.1%)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15.1%에서 112.6%로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이 각각 79.0%에서 78.1%, 108.9%에서 107.9%로 하락했다.

부채비율이 줄어 든다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값싸야 할 빛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된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외부자금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경영 활동이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적게 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시장에서 조달된 자금 즉, 기업부채는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채의 연간 이자율을 감당하고도 수익이 높아지면 외부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기업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아지고, 매출 부진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의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파산에 이를 수는 있다.

분명 기업부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안 쓴다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익성에 신경을 쓰면서 매출은 줄어 들어도 이익률은 유지하는 추세”라며 “이렇게 벌어들이 이익이 투자로 가지 않고 잉여금으로 쌓이면서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서 금융 부담을 보여주는 차입금 의존도는 지난해 3분기 20.3%로 2분기(20.5%)보다 감소했다. 투

자를 위해 외부자금을 끌어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3분기 차입금 의존도는 2분기(18.3%)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비제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23.5%에서 23.2%로 내렸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도 각각 18.6%에서 18.4%, 28.7%에서 28.5%로 하락했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내부에 쌓아두는 현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의 ‘기업 보유현금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전기말 자산 대비 보유 현금 비중은 7.4%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유 현금 비중이 6.2%였던 것과 비교하면 직전 연도 말 자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보유현금이 19.4%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용민 연구위원은 “기업의 보유현금이 증가한 주요인은 투자다. 2014년 이후 보유현금이 급증한 것은 기업의 투자 감소에 따른 결과”라며 “이 같은 현상이 특정기업군이나 국내 기업부담 전반에 걸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cou.co.kr

기업 꽃샘추위... 3~5월 외화채 79억 달러 만기 집중

만기도래 외화채한국물 상반기 물려 자금조달 시장 체감 온도 낮아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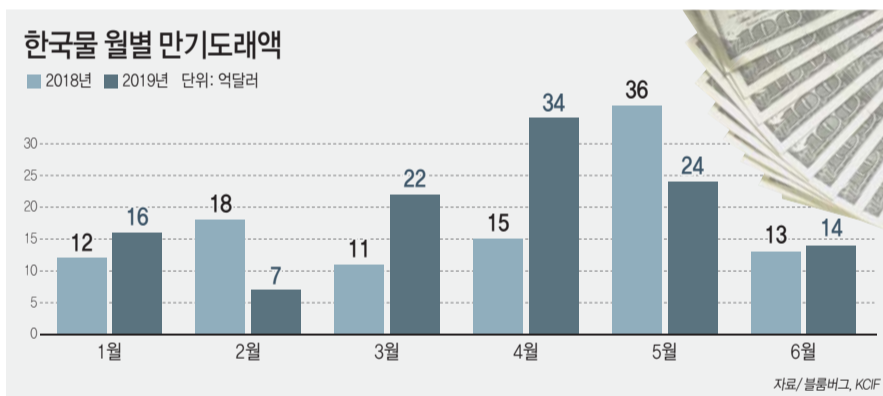
국내 은행과 기업이 느끼는 올해 꽃샘추위(3~5월)가 매서울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값싸야 할 해외 빛이 79억달러나 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올해 금리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을 2회로 수정했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초점이 거시경제 안정으로 모아지면서 올해 전체적인 빛 상환 부담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특히 한국경제의 체력이 탄탄해 ‘부채절벽’ 상태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 3~5월에 79억달러 물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9년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권 한국물은 220억달러 규모다. 이는 지난해 237억달러보다 17억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 중 상반기(1~6월)에 117억달러의 만기가 몰려 있다. 월별로 보면 4월과 5월, 10월을 잘 넘겨야 한다. 이 시기에 각



자료/블룸버그, KOF

각 34억달러, 36억달러, 34억달러 가량의 빛을 값싸야 한다. 11월에도 29억달러가 물려 있다.

기관별 비중은 국책은행의 빛이 절반(50.3%)을 넘는다. 이어 공기업(21.4%), 일반은행(12.5%), 일반기업(8.9%), 정부(6.8%) 순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만기 비중이 65%로 가장 많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점증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가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국가·기업의 신용도가 낮

아져 채권 발행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당초 3회로 제시했던 내년 금리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을 2회로 수정한 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한 두달 사이에 덜 호키시(Hawkish·매과적)한 쪽으로 바뀌었다”며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천천히 가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라고 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한 셈이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김상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펀더멘털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자보상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면서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부 산업(반도체)의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 있다”고 지적했다.

◆ 韓경제 신흥과 차별, 가산금리 압력은 크지 않아

“금리·법인세 인상, 경기 둔화 등 기업들은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기본이다. 실물 및 금융시장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잠재적인 위험성은 기업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겠는가.” 사석에서 만난 B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하소연이다.

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지원하는 투자은행(IB) 관계자도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물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어 자금조달

시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나마 삼성·현대차·LG·롯데 등 대기업은 공간이 든든해 걱정이 덜하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사의 연결 기준 현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현재 현금 보유액은 118조5640억원이다. 상당수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자금조달도 마쳤다.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탄탄하다.

국제금융센터 곤도현 연구원은 “미국 및 아시아 크레딧시장 전반에서 가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 여건의 긴축, 기업이익률 둔화 등으로 상승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면서 “한국물도 가산금리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양호한 크레딧, 투자자들의 중국물 기피에 따른 반사효과,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신용도 믿음직하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도 각각 ‘AA’, ‘AA-’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

국토부,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선정

경관 우수성·관광자원 연계성 고려

국토교통부가 3일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10개 시·군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우수한 바다 및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선정·발표했다.

해안경관도로 15선은 고흥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575km 중 253.7km가 포함됐다. 노선 선정은 도로주변 해안경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지역특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고려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과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현지답사와 외부전문가 평가 등 검증과정도 거쳤다.

고흥의 ‘거금해안경관실’(23km)은 고흥의 어업과 해상교통의 중심지인 녹동항에서 출발해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담긴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소록대교와 거금대교를 지나 금산해안경관도로로 이어지는 코스다.

순천과 여수를 잇는 ‘여자만(汝自灣)갯길’(23km)은 여자만을 드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여자만의 풍요로운 생태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노랑해협을 따라 이순신 장군의 유산

이 있는 ‘이순신 호국로’(5.5km)는 하동급남면사무소에서 남해대교를 거쳐 남해관음포까지 이어지는 짧지만 강렬한 길이다. 예로부터 많은 유배객이 건넌 바다이고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전투인 노랑해협 현장이기도 하다.

남해 물미해안도로(35.2km)는 상동면 물건리와 미조면을 잇는 도로로, 남해의 가장 동쪽 해안을 따르면서 수려한 한려해상을 품고 달린다. 금산 남쪽의 두모마을,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변 등을 지난다.

고성 자란마루길(9.7km)은 바람과 파도가 빛어낸 해식동굴과 공통발자국 화석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짐 싣고 작업자 따라다니는 전동카트 개발

모바일 파워카트·스마트 파워캐리어

물류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동카트가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미정보시스템, 웨이브엔, 평택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한양대 등이 참여했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최대

250kg 화물을 운반하는 장비다.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가 부착됐다. 해외에서 만든 유사제품 가격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1500만원에 개발됐다.

스마트 파워캐리어는 작업자가 탑승해 장비를 조종하면서 최대 200kg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탑승형 전동 장비로, 해외 유사제품이 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다. 이 장비는 좁은 공간에서 방향전환이 자유로워 소량·다품종 제품의 운반에 적합하다. 공장 창고나 도매시장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가격도 약 33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채신화 기자